

“불교용어 이제 쉽게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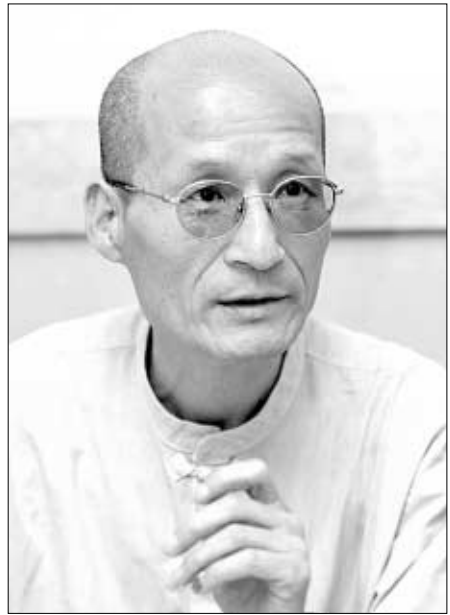
그 나라의 문화적도도 평가되는 사전의 편찬은 우수한 인력과 오랜 시간,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현 시대’에 쓰이는 가장 새로운 말의 뜻풀이와 지식정보를 담아야 살아 숨쉬는 사전의 몫을 다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좁은 시장과 인력부족 등 이리저리한 한계로 인해 사전 편찬은 다른 출판물 발행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계도 예외일 수가 없다.

불자들에게 있어 불교사전은 수행의 지침서이자 수행의 도반이며, ‘불교학의 최종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불자들의 욕구를 100% 만족시킨 사전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편찬된 불교사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은 실용성과 창의성 부족이다. 사전을 읽기 위해 또 다른 사전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용어들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일본 사전의 체계를 그대로 본 딴 구성과 번역문투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일본 사전이나 기존에 편찬된 사전을 답습하는 차원을 뛰어넘겠다”는 취지로 간행된 광철환(前 동국역경원 역경위원·사전) 씨의 <시공 불교사전> 역시 모든 불자들의 요구에 부응한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동안 지적돼 왔던 ‘실용성과 창의성 부족’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부분이 많다.

<시공 불교사전>은 콘사이스(휴대용) 사전으로 들고 다니기 쉬우며 값도 기존의 사전에 비해



‘시공 불교사전’

광철환 지음
시공사 / 3만8천원



실용·창의성 중점 ... 1만5천여 용어 7년 작업 ‘지대방’ ‘마지’ 등 흔히 사용하는 단어 추가

저렴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구성이다. 지은이는 “사전의 체계를 구성하는 일은 ‘버리기’로 부터 출발했다”고 말한다.

“사전의 부피만 늘일 뿐 독자들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관념적인 언어나 흔히 쓰이지 않는 단

어들은 과감히 뺐습니다. 그리고 기존 불교 사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생활이나 불교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처사’나 ‘지대방’, ‘부목’, ‘마지’ 등의 단어들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는 약 1만 5천여 단어가

담겼다.

여기에 이 책의 두 번째 특징이 묻어났다. ‘설명용 최대한 쉽게’ 쓴 것이다. ‘불교 용어의 모호함과 혼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역점을 뒀다’는 지은이가 “불교 사전보다 국어사전을 더 많이 봤다”고 말할 만큼 ‘쉽고 정확하게’ 우리말로 옮기는데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단어의 설명을 돕기 위해 사진과 그림, 도표 등도 덧붙였다. ‘구산선문 계보도’와 ‘금강계 만다라 구조도’, ‘화엄일승법계도’ 등은 지은이의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만하다.

책의 세 번째 특징으로는 단어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들 수 있다. “‘그, 나, 드’ 순으로 사전을 만들겠다는 것은 미련한 생각”이라는 지은이는 하나의 상위 개념 밑에서 파생하는 단어들을 한 번에 묶어 뜻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집필했다고 한다. “전체를 아우르는 이해와 설명 없이 단어 풀이만 한다면 사전은 몇 번이고 뒤적일 독자들 역시 개념의 유기성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전을 공부하다가, 혹은 법문집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그 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전이 되기를 바란다”는 지은이의 바람은 7년 동안 한 권의 책에 몰입했던 사람의 출판 소감이라기에는 소박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이 소박한 바람이야말로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불교전문사전의 출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감. 바로 <시공 불교사전>의 힘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대승기신론〉(석법성 편역, 운주사)= 불교 논서의 백미로 평가받는 <대승기신론>을 전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사무국장을 역임한 법성 스님이 쉽고 정확하게 풀었다. 1만원.

〈마음을 밝혀주는 60가지 이야기〉(방경일 글, 김장영 그림, 솔바람)= ‘스님은 왜 머리를 깎을까?’ ‘삼장법사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의 해답을 간결하게 풀어 놓은 글과 만화를 만날 수 있다. 1만원.

〈꽃 한다발〉(보현 스님 글/그림, 한샘)= <따래>의 저자 보현 스님이 말하는 ‘부처님 마음’ 이야기. 폐교된 학교건물을 임대, 개조해 정신지체가 및 영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보현 스님의 글과 그림을 담았다. 9천원.

〈꽃 한다발〉(보현 스님 글/그림, 한샘)= <따래>의 저자 보현 스님이 말하는 ‘부처님 마음’ 이야기. 폐교된 학교건물을 임대, 개조해 정신지체가 및 영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보현 스님의 글과 그림을 담았다. 9천원.

〈꽃 한다발〉(보현 스님 글/그림, 한샘)= <따래>의 저자 보현 스님이 말하는 ‘부처님 마음’ 이야기. 폐교된 학교건물을 임대, 개조해 정신지체가 및 영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보현 스님의 글과 그림을 담았다. 9천원.

“선종의 으뜸가는 어록”

‘지목강설 육조단경’

지목 지음
우리출판사 / 1만원

예로부터 불가에서 “<육조단경>을 스승으로, <서장>을 도반으로 삼는다”는 말이 전해올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온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단경>. 선종에서 선사의 법어집에 ‘경(經)’이라는 제목을 붙인 예는 <육조단경>이 유일하다. 그만큼 이 책은 돈오와 견성을 근본으로 하는 남종선의 종지를 잘 설명하고 있으며 해능 스님의 선사상을 알 수 있는 근본 자료다.

책은 모두 50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과마다 원문과 한글 뜻 풀이를 실고 어려운 용어는 해설을 덧붙였다. 또한 책 중간에는 선사들의 일화, 책의 끝 부분에는 관본에 따른 달리 쓰인 글자를 바로 잡는 양정문 씨의 교정표와 원문 전체를 담았다.

책을 옮긴 지목 스님은 “선종의 으뜸가는 어록이라고 할 수 있는 <육조단경>을 통해 삶의 굳건한 지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재미있는 미륵이야기 상·하’

강형구 지음
대광문화사 / 각 9천5백원

미륵의 역사·설화 묶어

인 민심을 이용하여 자신이 미륵이라 하여 일시적인 대중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재미있는 미륵이야기 상·하〉권은 소설가 강형구 씨가 미륵에 얽힌 역사와 설화를 묶어 펴낸 책이다.

상권 ‘역사 속의 미륵’은 전남 나주 미륵사 미륵입상과 칠불석상에 얽힌 비밀을 비롯해, 전북 고창 선운산에 얽힌 진흥왕의 창건설화, 어린아이의 지혜로 세운 충남 논산 반야산 관촉사, 옹화세계의 꿈을 실현하고자 했던 백제 무왕에 얽힌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권 ‘삶 속의 미륵’에서는 우리 조상들의 생활 속에 전해오는 열 세 편의 미륵설화를 들려준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위를 얻고 싶은 두더지와 미륵에 얽힌 이야기부터 산토끼가 잡자면 명당, 포대화상에 얽힌 이야기 등이 펼쳐진다. 지은이는 각 이야기마다 나름의 해설을 붙여 놓아 이해를 돕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책방 예시이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가장 행복한 공부	정화 스님 시공사	시공사
2	나는 여성의 품으로 붓다가 되리라	비티 메킨지 김영사	김영사
3	내 사주 내가 본다	임태근 여시아문	여시아문
4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스님 다라니	다라니
5	천수경과 기도법	윤영해 불교시대사	불교시대사
6	영원한 대자유인	강정진 공리	공리
7	마음만 먹으면 다 된다	우승택 장승	장승
8	사람	서용 스님 고요아침	고요아침
9	파드마삼바바	백이제 민음사	민음사
10	티베트 금강경	깨달라설라 도피안사	도피안사

도서 안내: (02) 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예시이문 전화: (02) 737-0695

9월7일(양력) 태아영가 엄마·아빠 49일 참회기도 입재

귀의삼보 하옵고
무더운 날씨도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는 문턱, 기도의 계절, 불자님 가정에 항상 부처님의 가호가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구담사에서 매년 양력 3월, 6월, 9월(첫째 일요일)에 태아영가를 위한 엄마·아빠 참회기도 49일 천도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불사인연 동참하시어 기도도량으로 자리매김하여 원만히 불사를 마쳤습니다. 양력 9월 7일 국내최초의 애자모 탕화, 애자모 지장보살, 108동자를 조성하여 점안식을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성에 감사 드립니다.

증명법사 봉선사 조실 월운 큰스님, 도선사 회주 혜성 큰스님.
일시 2003년 9월 7일(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구담사 대웅전

애자모 지장보살, 애자모 탕화 및 108동자 점안식을 함께 봉행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구담사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 4리 595번지 ☎ 031) 533-2855 팩스 532-2441 홈페이지: www.gudamsa.org

- ◆ **기도 입재일**: 양력 9월 7일(첫째 일요일)
- ◆ **기도 회향일**: 양력 10월 26일
- ◆ **기도 동참금**: 49일(7회) 3년 회향까지 30만원 (단, 완불하신 분은 동자 봉안해 드림) 49일 1회는 10만원 (위패비는 기도 때마다 별도로 받음)
- ◆ **위패비**: 1위당 - 5천원, 영가 옷: 1천원
- ◆ **준비물**: 분유(우유), 사탕, 과자, 초코파이 등...
- ◆ **구담사 교통안내**: 강변역과 도봉산역에서 구담사행 버스가 08:00에 출발합니다. (강변역 테크노 마트 주차장 입구 / 1. 7호선 도봉산역 도봉산 방향 입구)
- ◆ **대중교통 안내**:
 - ◆ 강변역 동서울 터미널 - 일동행, 수유리 전철역 터미널 - 일동행,
 - 상봉동 상봉 터미널 - 일동행 - 연곡4리 (제비울 하차)
 - 운행은 입재, 3재, 5재, 7재만 운행
- ◆ **계좌번호**: 국민은행 : 217-01-0339-914 / 농협 : 225050-56-033370
- ※ 특히 대학 수능, 입시, 취업, 사업하시는 분은 꼭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 위패 봉안하는 관례로 미리 동참하여 접수 바랍니다.